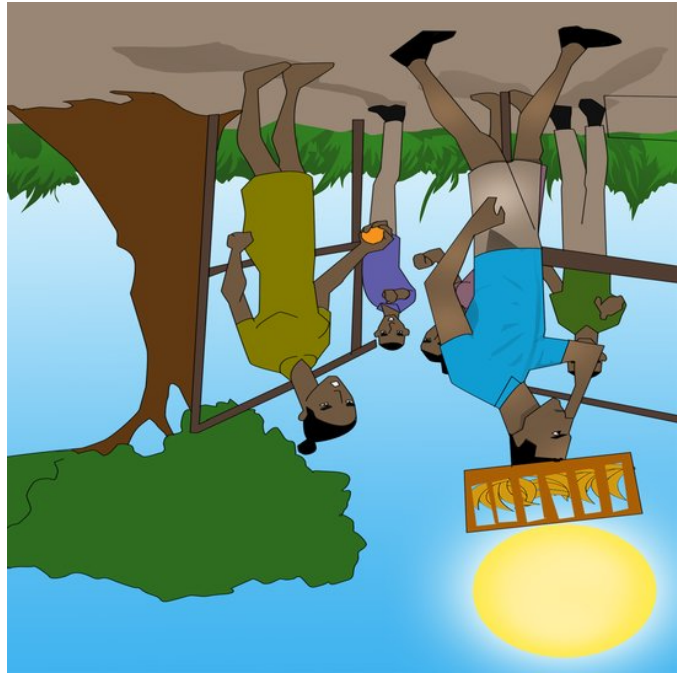




✎ Humphreys Odunga  
 📧 Zablon Alex Nguke  
 📍 Jong Yong Park  
 🗣️ Korean  
 📖 Level 2



# 마나나 잔수 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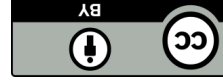
# Storybooks Canada

[storybookscanada.ca](http://storybookscanada.ca)

## 마나나 잔수 돌

Written by: Humphreys Odunga  
 Illustrated by: Zablon Alex Nguke  
 Translated by: Jong Yong Park

This story originates from the African Storybook ([africanstorybook.org](http://africanstorybook.org)) and is brought to you by Storybooks Canada in an effort to provide children's stories in Canada's many languages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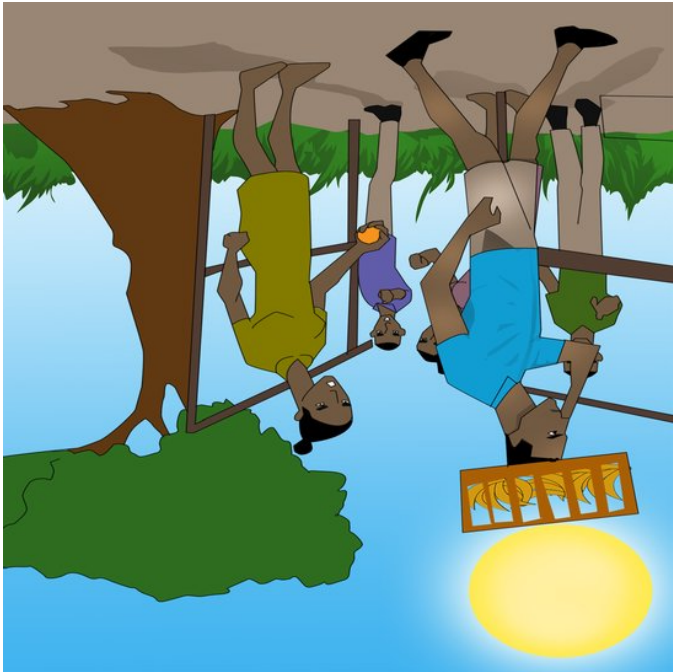


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4.0 International License.  
<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4.0>



툼은 잘 익은 바나나 한 접시를 들고있  
어요.

· 정서적 지원을 받아가며 이루어지는 공물





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과일을 사고 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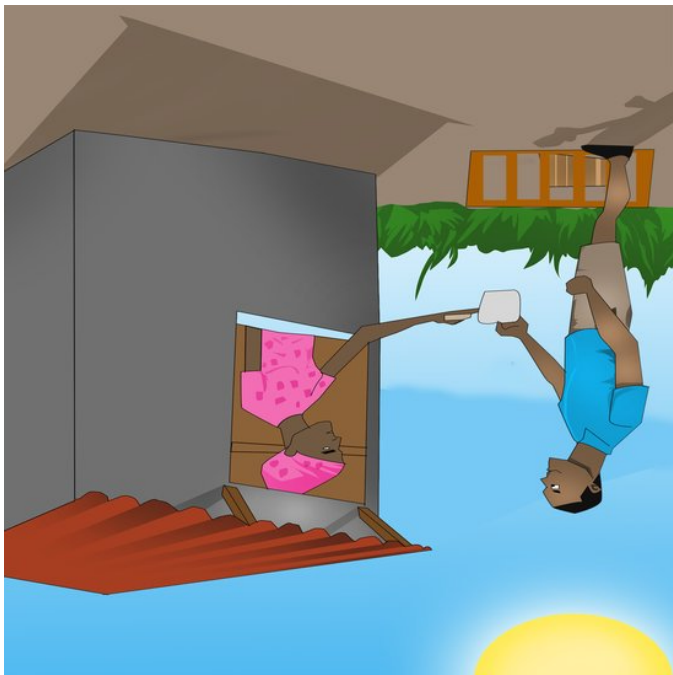


툼은 접시를 머리 위에 받치고 집으로 가요.

그리나 누구도 물의 버나나를 사지 않아  
공. 사람을 여자에게서 버나나를 사고  
진야공.



그리고 물공 버누, 섶탄과 빵을 사공. 룸  
간를 전시에 탄야공.





“우리 사회에선, 여자만 과일을 팔 수 있어,” 사람들이 말해요. “무슨 남자가 이래?” 사람들이 물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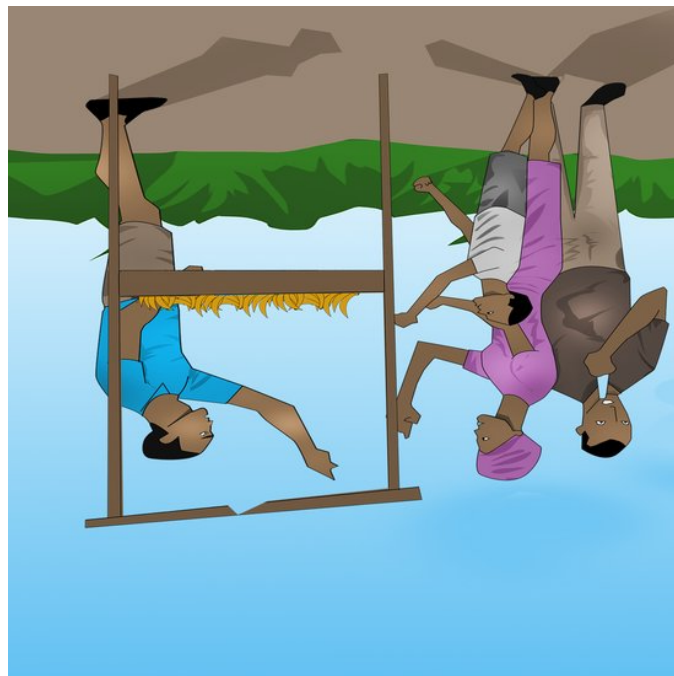


금새 접시가 비어요. 톰은 번 돈을 세어요.

그러나 돌은 포기하지 않아요. 그는 이  
것을 “제비나사를 그려서요.”, “제비  
나사를 그려서요.”라고 말해요.



더 많은 사람들이 기대어 앉아요. 그를  
공물이라고 부르거나 공물  
이라고 부르거나 그래요.





한 여자가 바나나 한 움큼의 바나나를  
접시에서 집어들어요. 그녀는 바나나들  
을 자세히 살펴요.



여자는 바나나를 사요.